

99년 '건축문화의 해' 지정

건축3단체 「조직위」 구성,
다양한 사업 추진

99년이 '건축문화의 해'로 지정됐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5월 24일, 99년도 문화예술의 해 선정을 위해 문화예술계와 언론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년을 건축문화의 해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문화관광부는 또 이번 건축문화의 해 지정이 "건축이 공학기술의 일부로만 인식돼 온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의 중요 분야로서의 위상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등 건축3단체는 빠른 시일 내에 조직위를 구성해 다양한 추진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99년 6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세계건축가연맹(UIA)총회와 연계해 한국건축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1년부터 특정분야를 선정, 집중지원하는 '문화예술의 해' 행사를 추진해 왔는데 내년 '건축문화의 해'는 연극영화, 춤, 책, 국악, 미술, 문학, 문화유산, 사진영상에 이어 아홉 번째다.

'98건설진흥촉진대회, 6월 18일 개최

유공자 포상과 함께 다채로운
부대행사 열려

'98건설진흥촉진대회가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우리협회와 건설협회 등 15개 건설관련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건설인과 업계 대표, 정부인사, 관련 기관장 등 약 1천1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이날 대회에서는 건설진흥에 기여해 온 유공자들에게 대한 포상이 있게 된다. 한편 주최측은 이번 대회의 부대행사로 오는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1층 로비에서 국내외 각종 건설 현장 모습들을 담은 건설사진전을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행사 당일인 6월 18일 오후 2시부터는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산업발전세미나를 개최한다.

건축학회 회장에 이경희 연세대 교수

부회장에 김규석, 한규봉, 조철호, 김진균

대한건축학회는 지난 4월 25일 9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경희 연세대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부회장에는 김규석(유임, 동국대 교수), 한규봉(유임, (주)천일건축 대표), 조철호(건국대 교수), 김진균(서울대 교수) 등 4인을 선출했다.

엠&이 건축, ISO9001인증 취득

지난 5월 1일 인증서 수여식 가져

(주)엠&이 건축(대표이사 이근창)이 지난 5월 1일 한국경영인증원(KCR)으로부터 건축공사의 설계, 감리 및 서비스분야에서 ISO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엠&이 건축은 건축설계분야에서 5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업체로 그동안 '고객에 대한 최고수준의 품질보장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경영방침에, 97년부터 품질보증 체제의 정비 및 구축에 나서 마침내 지난 4월 25일에 인증등록을 하게 됐다. 한편 이근창 대표는 "이번 품질보증체제 구축을 계기로 설계 및 감리 영역 서비스를 업계 최고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인증서 수여식 광경

건축사진전-

'건축과 공간의 만남'

사진을 통해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심어줘

연세대 건축과학기술연구소 소속 석·박사과정 연구원들이 주축이돼 실제 연구과정에서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이론을 기초로 건축사진전을 개최했다. 지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전

사회는 '건축과 공간의 만남'이란 주제가 말해주듯 학문적 시각에서 건축과 공간의 관계를 카메라에 담은 건축사진들이 전시돼 관심을 끌었다. 황대성(동원공업전문대 겸임교수), 주옥자 김석기 김영신(이상 연세대 건축계획 및 평가연구실 연구원), 염성원(연세대 4학년)씨 등이 출품작가로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는 '옛 건축과 현대건축의 만남', '실내공간과 외부공간의 만남', '건축과 자연공간의 만남' 등 각 테마별로 사진작품들이 구분 전시돼 관람객들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문을 지나며(종묘) / 김영신작

제3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작품공모

96년 97년 사이 사용승인된 경기도내 건축물 대상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경기도의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제3회 경기도건축문화상의 출품작을 공모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건축사회 등 경기도내 4개 건설관련단체가 후원하는 올해 경기도건축문화상은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 사이에 사용승인된 도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승인건축물부문과 신인·학생 대상의 계획작품부문 등 2개 부문으

로 구분해 작품을 공모한다. 응모방법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응모방법 및 접수

▶사용승인건축물부문

- 주거부문과 비주거부문 구분 접수, 사상
- 1차접수: 작품설명서가 포함된 B4 규격의 사진첩(8"×10"사진 10매 이내 및 배치도 평면도 수록) 2부와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간이소개서
- 2차접수: 1차 사진첨사 통과 작품에 한해 패널 제출
- 접수기간 및 접수처: '98. 7. 1~7. 14 / 경기도건축사회(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계획작품부문

- 패널(90cm×120cm) 1매 및 모형(100cm×100cm) 각 1점
- 작품설명서 1부
- 공동작품의 경우 작가명의로는 3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기간 및 접수처: '98. 10. 1~10. 10 / 경기도건축사회(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시상내용

▶사용승인건축물부문

- 주거부문: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점(설계자-상장 및 상금, 시공자-상장, 건축주-상장 및 건축물부착용 동판)
- 비주거부문: 주거부문 시상내용과 동일

▶계획작품부문

- 주거부문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점(각 상장 및 상금 수여)

○시상식: '98. 10. 30(예정) / 대한 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대강당

○작품전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등 2개지역 순회전시

○문의: 경기도청 주택과 (0331-249-4920) 경기도건축사회(0331-47-6129~31)

'터사랑' 6월 답사여행

참가자 모집

법주사·백제불교 전래지 등 답사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여행문화의 정착을 위해 결성된 여행동호모임 '터사랑(대표 전숙희)'에서 6월 문화답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중에는 ▶여수 - 항일암 일출과 이충무공의 발자취를 찾아서(6월 5일~6일) ▶고창·영광 - 선운사와 백제불교의 첫 전래지를 찾아서(6월 13일~14일) ▶법주사와 보은유적지를 찾아서(6월 21일) ▶남원·산청 - 실상사와 천왕봉의 기상 어린 산청의 유적순례(6월 27일~28일) 등 네가지 코스의 답사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 참가희망자는 자신의 답사목적이나 시간계획에 맞는 답사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건축답사에는 역사탐방연구회의 염상균, 정인식, 이세웅씨 등이 강사로 동행하며 참가비는 1인당 3만5천원~5만원이다.

문의: 터사랑 (02-725-1284)

'99 UIA 국제학생설계경기

참가자 모집

주제는 '21세기의 도시건축'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김한근)에서는 99년 6월 북경에서 열릴 '99 국제학생설계경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국제학생설계경기는 '21세기의 도시건축'을 주제로 실시되며 수상자에게는 세계건축가연맹(UIA)총회 참가 특전이 주어진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9월 15일까지 신청서와 등록비(미화 50달러)를 접수해야

하며 작품은 99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축가협회 (02-744-8050) 또는 중국 X'ian건축기술대학(86-29-2202943, 86-29-5527821 / Liu Kecheng, Li Jiao)으로 하면 된다.

「제9회 김수근건축상」 수상자에 유 결氏

밀알학교 설계로 학교건축의 새로운 전형 구현 공적

건축가 유 결씨가 김수근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9회 김수근건축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초에 한국건축가협회상을 받기도 한 유 결씨는 자폐아 특수학교인 '밀알학교' 설계로 학교건축에 대한 새로운 전형을 구현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건축가 김종규 초청강연회

C3그룹 주최,
주제는 '이론화 과정으로서의 작업'



월간 KA와 C3그룹이 공동주최한 「제2회 C3포럼 - 건축가 김종규 초청강연회」

가 지난 5월 13일 연세대 제3공학관에서 열렸다.

이날 김종규씨는 '이론화과정으로서의 작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론화과정으로서의 건축작업은 철저히 관습적 건축작업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며 우리가 알고 이용해 온 관념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필요로 한다"면서 "건축적 작업은 다양하고 개인적일 수밖에 없으나 개인적 사고의 과정은 우리가 속한 환경과 시대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우건축과 런던 플로리다 베이켈 아키텍트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건축가 김종규씨는 현재 M.A.R.U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종합예술학교 건축과 겸임 교수로도 재직중이다.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개원

지난 5월 29일 개원식 개최

경기대 건축대학원이 지난 5월 29일 서울교사 대학원세미나실에서 개원식을 갖고 전문대학원으로서 새롭게 출발했다. 이 자리에는 우리 협회 윤준섭 부회장을 비롯해 건축계와 문화계, 학계 등 각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해 국내최초로 설립된 건축전문대학원의 탄생을 축하했다.

특히 이날 개원식에서는 이문영 아태재단 이사장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원하고 새출발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에서 '시작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었으며, 또한 교내 민주광장에선 사물놀이패 '굿태궁', 김운선무용단, 피아니스트 신수정씨 등이 개원 축하공연을 가졌다.

건축역사학회

6월 월례발표회

건축가 현영조, 김영섭씨 등 참여

한국건축역사학회의 6월 월례발표회가 오는 6월 20일 오후 2시 홍익대학교 T동 101호에서 열린다. '양식으로써의 전통, 형식으로써의 삶 - 그 충돌과 교점'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표회는 건축가 현영조(서울 환경계획연구소 소장)씨와 김영섭(건축문화연구소 소장)씨가 참여해 실제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남한산성 요철요 주택과 가회동의 능소현·청송재에 대해 발표를 하며 김원식(건축가, 경기대 건축대학원 초빙강사)씨 등 토론자들과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발표회는 작업장과 살림집으로써의 두가지 성격을 지닌 현영조씨의 남한산성 요철요 주택과 내외공간의 투명성 보장에 대한 노력이 엮이는 김영섭씨의 가회동 도시 한옥을 통해 현대주택 설계과정에서 이들 두 건축가들의 한옥에 대한 건축언어가 어떻게 재 번안돼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한옥 보존과 보수·복원이 갖는 의미도 알아본다.
문의: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윤인석 교수 (0331-290-7550)

성균관대 동문 '동바리'

건축작품전

건학 600주년 및 동아리 탄생 10주년 기념행사 일환

성균관대 건축공학과내의 전통있는 설계 동아리 중 하나인 '동바리'가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학과 갤러리에서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이

학교 출신의 젊은 건축가들이 주축이 된 이번 건축작품전에는 학창시절 작업실에서 열정을 쏟았던 30여명의 동문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실력있는 건축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재학생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용기를 심어준 것은 물론 전시 마지막날에는 선배 건축가들을 초청해 선후배간 친분과 교류를 다졌다.

경기대 건축전시회

학과생 졸업작품전에 이어
건축전문대학원 개원기념전 열려

경기대 건축공학과와 건축전문대학원에서는 오는 6월 8일부터 22일 기간중 각각 작품전을 개최한다. 경기대 사회교육원 6층 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들 건축전은 건축공학과 졸업작품전이 6월 8일부터 13일까지, 건축전문대학원 개원기념 작품전이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각각 열린다. 특히 경기대 건축공학과 작품전은 4학년 졸업작품과 1~3학년 찬조작품들이 전시되며 건축전문대학원 작품전은 13개 스튜디오 학생 전원의 작품들이 선보이게 된다.

문의: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학부(02-390-5245~6)

건축신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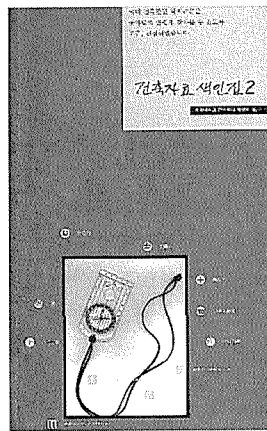
건축자료 색인집2
건축은 삶과 동지
건축실무편람

◇ 건축자료 색인집2

이 책은 국내외의 주요 건축잡지와 국내 건축관련 학위논문을 분야별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분류, 편집한 자료색인집이

다. 이미 보급돼 있는 1~4판의 기존 자료내용에다 97년 12월까지의 최신자료들을 추가해 보완한 이 책은 각각의 항목에 대한 시작 페이지 수와 분량을 표기해 놓아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변별력을 높일 수 있게 구성돼 있다. 특히 이 책에는 건축사, 건축가, 건축문화, 공간, 이상건축, 건축과환경, 플러스 등 국내 주요 건축잡지의 목록은 물론 a+u, I'ARCA 해외 유명 건축잡지에 관한 자료들도 함께 수록돼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건축공부를 지향하는 건축학도나 건축실무 종사자, 학문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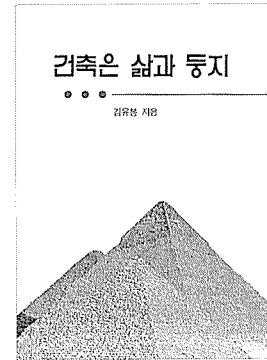
홍익대 건축학과 학생회 編著 / 도서출판 발언(02-929-3546) 펴냄 / 270쪽 / 1만5천원



◇ 건축은 삶과 동지

이 책은 건축사인 저자가 수년간 신문에 연재했던 글들과 그동안 틈틈히 써서 모아둔 글들을 한권의 에세이로 펴낸 것이다. 책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건축을 삶과 동지로 보는 저자의 일관된 주제의식이 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며 또한 건축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서양건축사와 한국건축사의 이면 이야기들을 적고 있어 일반인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건축과 인간, 건축물과 건축가, 고건축과 종교건축, 건축의 미학, 풍수, 불교건축 등 여섯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에세이인 만큼 건축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글로 쉽게 접할 수 있다.

김유봉著 / 기문당(02-295-6171) 펴냄 / 신국판, 반양장 / 294쪽 / 9천원



◇ 건축실무편람

사회생활 환경구조가 복잡해감에 따라 생활여건을 충족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당한 변천을 거듭하여 왔듯이 건축법도 건축행위를 위한 하나의 지표로써 현실정에 맞도록 보완·개정 또는 정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 책 건축실무편람은 건축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소용(所用)되고, 또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조문을 유권해석한 내용으로 1970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건축관계 법규의 중요사항만을 간추려 1,300여개의 질의·회신사항을 건축법의 목차에 따라 분류·편집해 놓고 있다. 또한 책내용중 회신근거 확인이 곤란한 사항은 건축관계법 문답집이라 표기하였고 *표를 이용해 개정법조항을 주기(註記)하고 해설 또는 참고·판례 등으로 관련규정을 발췌, 수록하였다. 또한 이 책 부록편에는 현재 적용되는 행정부처의 공고·고시·행정지시·지침 등을 한데 묶어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김성배 編著 / 도서출판 세진사(02-922-6371) 펴냄 / 1,276쪽 / 6만원

